

BC급자재 구매관리 업무부담만 떼어내면 구매관리가 정상화됩니다 !!!

매일 움직이는 수천종 자재들의 수요량/재고량/기존주문량들을 정확하게 관리해서
항시 정확한 주문수량을 연산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. **ABC분석 재고관리** 기법의
C급자재관리나 **크랄직매트릭스** 전략의 **Non-Critical Items** 관리가 요구하는 것은 모두
BC급자재들은 자동납품 구조로 구매업무부담을 떼어내라는 것 입니다.

자동납품 거래방식으로 해결되며 그 경제적 Impact는 엄청나게 큼니다 !!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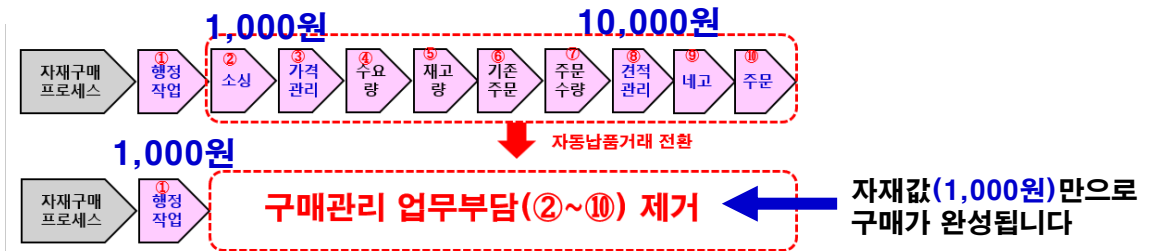
1. 소싱에서 주문까지의 모든 거래관리 절차가 제거됩니다 !!!

구매관리에는 많은 업무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. ①자재코딩후, ②납품사 소싱, ③가격작업등 행정작업
이 수행되고, ④수요량, ⑤재고량, ⑥기존주문량을 파악하여 ⑦주문수량을 연산합니다. 그리고, ⑧견적
작업, ⑨네고를 거치고 ⑩주문합니다. 사실상 엄청나게 큰 업무량입니다. 자동납품 거래방식은 소싱과
주문이 필요없습니다. 즉, ②소싱에서 ⑩주문까지의 모든 업무절차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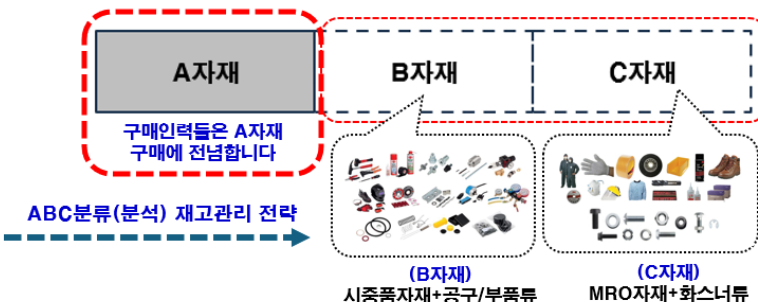


2. 가격구조가 변화되며 구매비용이 크게 줄어듭니다 !!!

BC급 자재들은 대부분 저가 자재들이지만 양적으로 많으므로 가격부담보다 **관리부담**이 훨씬 큼니다.
따라서, 자동납품 거래방식은 **자재가격**만으로 구매가 완성되므로 관리부담이 모두 제거됩니다,



3. 구매관리 업무부담 2/3가 제거됩니다 !!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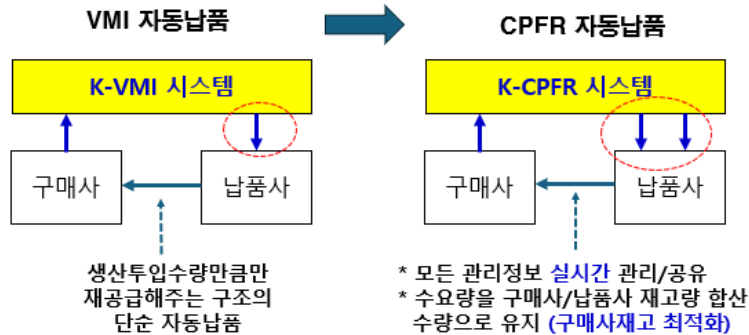


BC급 자재들은 (가격은 적으나) 양적
으로 **전체자재의 70%** 안팎입니다.
BC급자재 구매관리 업무부담 제거는
사실상 **전체 구매관리 업무부담 2/3** 가
제거되는 것 입니다.

따라서, 자사 인력들은 **A급자재** 구매
관리에 전념할 수 있고, 구매관리는 자
연히 **정상화**됩니다

4. 항시 재고최적화가 가능합니다 !!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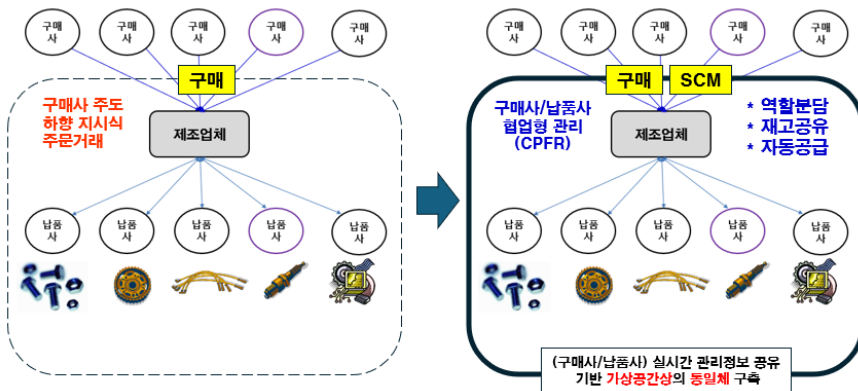
자동납품 거래는 VMI방식과 CPFR 두가지가 있으며, 모두 **실시간 재고정보**를 기반으로 합니다. 따라서, 항시 정확한 수요량/재고량이 파악되므로 결품/악성재고 없는 **양적 최적화** 유지가 가능합니다,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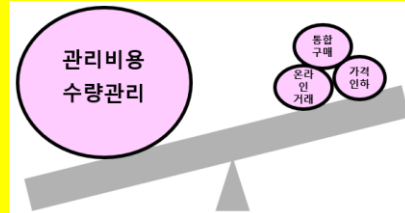
ICT시스템 (K-VMI/K-CPFR시스템): <https://youtu.be/bwEnMhzthso>

공급사슬관리형 구매관리 입니다 (구매+공급사슬관리)

국내 기존 구매거래는 모두 구매사 주도형 구매관리 위주의 운용이며 납품사 협업관리가 부족합니다 따라서, **납품사 재고부족시 결품되며 자동납품 거래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.** 그러나, VMI, CPFR 방식 모두 구매관리+납품관리 통합형 거래관리라서 가능해집니다. 즉, 구매사/납품사들 모두가 **실시간 재고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(가상공간상의) 동일체구조**가 됩니다. 마치, **동일업체 개별 자재부서 기능**이 가능합니다.



BC급자재는 가격이 아니고 관리비용이며, 수량입니다 !!!



• ABC분석 재고관리 기법 : <https://tool-blog.waveon.io/ko/abc-analysis-guide-for-inventory-management>

• 크랄직 매트릭스 구매전략 : <https://zorbanoverman.tistory.com/1174>